

# '나주사랑 상품권' 판매액 20억 돌파

### 관 주도 탈피...발행액 64% 일반 시민이 구매 이달중 5억 추가 판매...지역경제 활성화 한 몫

나주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주시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해부터 발매를 시작한 나주사랑 상품권은 올들어 판매액이 2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공무원 위주의 관 주도로 판매되고 있는 여타 시·군과 달리 대부분 일반시민들이 구입한데다 판매된 상품권이 전업종에 걸쳐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25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발행, 지난달 30일 현재

판매액이 20억원을 넘어섰다. 상품권 구입대상은 일반시민이 전체 발행액의 64%인 12억9천500만원, 나머지는 공무원들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품권 발행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권의 사용처는 농협마트 8억4천여만원, 요식업소 1억6천여만원, 일반상점 4억여원, 약국이나 병원 부속점포 3억1천여만원, 주유소 1억6천여만원 등 전 업종에 걸쳐 골고루 유통되고 있어 전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사랑상품권 판매가 활성화

된 것은 나주시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장보기 날 행사와 성과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데다 상품권 액면가의 2%를 할인판매 하는 인센티브가 주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주사랑 상품권은 관내 53개 전 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5천원권과 1만원권, 3만원권과 5만원권 등 4종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모든 상점에서 이용가능토록 했다.

나주시 지역경제와 이영규 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10월중 5억여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며 "24일부터 개최되는 나주 영산강문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상품권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해남군 사회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

### 정산서류 등 관리 부실...유령 모임 만들어 지원금 빼돌려 관리감독 형식적...동일 사업에 3~6개 단체 중복 지원도

해남군이 지역내 사회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행사 지원금 등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관리를 위한 정산서류의 상당 부분이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간이영수증인데다 개최도 하지 않은 '유령모임'을 만들어 지원금을 빼돌리는 등 도덕성이 실종했다는 지적이다.

또 자연보호와 통일 관련 사업 등 동일한 사업에 3~6개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예산마저 중복 지원되고 있으나 해남군의 관리 감독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52개 사회단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모두 3억2천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2천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국예총 해남지부의 경우 장터 문화제 사업비 1천 710만원(보조금 1천400만 원, 자부담 310만 원) 중 사업비의 10%가 넘는 225만 원을 단체 회장과 사무국장 등 간부들의 심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또 136만 원은 각종 회의와 회식비 등으로 쓰였다.

또한 해남예술팀을 열면서 지역 도의원과 군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역서를 해남군에 제출했으나, 확인결과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예총 관계자는 "부족한 자부담 예산을 인건비 명목으로 충당했으며, 간담회비 30만원은 서류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일부 사회단체들도 해남군에 예산 등을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정산 서류를 제출했다가 반려 조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회계의 불투명은 민선 자치단체 이후 더욱 심각해 졌다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해남군의 한 공무원은 "민선 자치단체로 들어서면서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 때문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해남군은 오는 2009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및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 담양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 '눈 앞'

### 광주은행과 '금융지원' 협약 체결...내달 분양 공고

담양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가 분양된다.

담양군은 19일 "담양읍 삼만리에 조성 중인 농공단지 공사가 65%가량 진행돼 다음 달 분양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다음 달 중 분양공고를 내 업체들의 입주신청을 받고 심사를 벌여 내년 초까지 입주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분양면적은 41필지 23만여㎡ 규모로, 현재 19개 업체가 예비 접수를 마친 상태지만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일부 업체는 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최

근 광주은행과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토지분양 대금은 물론 기업운영 자금과 수출·입 업무 지원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광주은행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오수 관로, 통신·전기시설 설치작업 등을 마치면 내년 4월께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와의 분쟁 등으로 완공이 미뤄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입주업체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화순군 내 13개 읍·면 고유의 민속문화가 선보인 '화순 풍류문화큰잔치 성료' 화순 풍류문화큰잔치는 내년부터 세계 각국의 민속 문화가 선보이는 전남 대표 축제로 육성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장성 백양사에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장성 백양사에 야생화 재배시 설단지가 들어선다.

장성군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산림청으로부터 받는 3억원을 포함해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백양사 관광지 1천650㎡에 야생화 재배시설단지를 조성한다.

야생화 단지에는 백양꽃과 금새우란, 쇠뿔석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야생화 조직배양 시설과 재배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20여년동안 야생화를 재배 연구해 온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방침이어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성군은 읍·면 대표적 야생화인 백양꽃을 백양사, 장성호 관광지, 제봉산 등산로 등에 3만여본을 식재하는 등 백양꽃 자생지 복원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 천관산 '동백숲 산림공원' 개장

### 관찰용 산책로·학습로·탐방로 등 조성

2만여그루의 토종 동백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장흥 천관산에 '동백숲 산림공원'이 문을 열었다.

장흥군은 19일 "최근 천관산 기슭 관산읍 부평리 일대에 '동백숲 산림공원'이 개관,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산림공원에는 동백나무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관찰용 산책로(사진)와 학습로, 탐방로, 난대림 전시관, 전망대 등이 조성돼 있다.

이곳은 동백나무의 분포면적이 무려 50ha에 달하며 수령 100~200년에 달하는 토종 동백나무 2만그루가 자생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동백숲으로 한국 기념사에 등재돼 있다.



장흥군은 그동안 동백숲 보전 사업과 함께 이 자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기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 천관산 동백숲 보전회 등과 함께 천관산 산림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흥군은 내년에 이 공원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숲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최고의 난대림 국민교육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전남 지자체 복지 수준 '전국 최고'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도 지자체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순천시와 해남군이 선정되는 등 전남 10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난해 추진한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인프라 전반을 재정자립도와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3곳, 우수 26곳, 준우

수 13곳 등 64곳을 선정했다.

전남지역 지자체는 최우수 2개 시군, 우수 5개 시군 등 총 10개 시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시상금 5억6천만원과 함께 공무원 7명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8곳, 부산 7곳, 서울과 충청남도 각각 6곳을 차지했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최우수 시·군에 순천·해남 10개 지자체 '우수' 선정돼

"전남지역의 복지수요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지만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임에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20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되는 제 3회 사회복지 전국대회에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전회번호부를 만나듯 다양할 방법**

신속한 신청·발급 절차, 간편한 신청 방법, 신속한 발급, 저렴한 비용, 다양한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소명서류**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접수
- 3. 신청서 접수 확인
- 4. 신청서 접수 확인

**업종 및 상호 전화번호부**

2008년 광고매달 임박! 광고문의 062) 512-1144